

여야 선대위 출범... 4·7 재보선 총력전 돌입

대전 1년 앞두고 당력 총동원... 선거 결과 따라 정치지형 급변할 듯 민주, 서울시 대전환 등 정책 선거 다짐... 국민의힘, 정권 심판 전략

내년 3·9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의 전초전격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전이 본격적화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하면서 재보궐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최고위원 전원과 서울·부산시장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거리를 두면서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 비전, 부산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며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최대 악재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투기방지책 처리 등을 약속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침이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의 고통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을 회복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박영선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시정을 꾸민다고 설계 해 온 사람이다. 박영선은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울의 대전환, 부산의 새 비전을 만들겠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서울을 세계 표준도시로 전환할 비전과 추진력, 경험을 갖춘 박영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참여한다. 나경원 전 의원 등 경선 후보들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으로 꾸준히 이슈를 생산해 야권 지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선거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인 서울시장 후보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허영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공근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도당 연석회의

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한 뉴스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불법투기,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검장들 "중수청 입법 우려" 한목소리

전국 고검장 회의... 국회·법무부와 소통하며 입장 조율 의지

전국 고검장들이 8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조려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중수청 입법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을 거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뉘앙스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를 배제한 대국민 호소전을 선언해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 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신뢰가 나가지 않겠다"고 평가했다.

고검장들은 또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이 안정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무 기강도 확립해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 '물꼬'

실무협상단 구성... 경선물·여론조사 문항·단일후보 기호 '입장차'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인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풀렸다. 양측은 8일 단일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본격화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 두 후보는 전날 이른바 '오프 회동'에서 후보 등록일(3월18~19일) 이전 단일화 원칙에 공감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협상대야의 이슈가 적지 않다. 미세한 물에서 경선결과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저마다 유리한 방식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개방형 시민 경선'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결국 당조직에 기대겠다는 것'이라

며 기존의 여론조사 물고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 조항을 놓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오 후보는 '야권후보 적합도', 안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직력에 기댈 수 있는 오 후보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안 후보 측 손익이 엇갈리는 셈이다. 단일후보의 기호를 놓고서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전폭적 지원을 위해서는 야권 단일후보가 제1야당의 기호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기호 2번을 달고 여러 차례 야권에 패배한 만큼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추경 일정 합의 결렬

여, 정책질의 3일 늦춘 15일 제안... 국민의힘 "18일 이전엔 불가"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만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을 조율했다. 최종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입장차는 다소 좁혀졌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 열리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날짜를 애초 주장하던 11~12일에서 15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도 처음에 주장하던 18~19일에서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애초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18일 이전에 종합정책질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제 막 추경 자료를 넘겨받은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3일 차이긴 하지만 더 좁혀지지 않았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지도부와 상의한 뒤 필요하면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제시한 일정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며 "신속히 한다는 원칙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국민 혈세를 심사할 일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순천1선거구 도의원 후보 한춘옥씨

금품살포 의혹으로 재공모가 이뤄진 4·7 보궐선거 순천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자로 한춘옥(여·56) 순천농협 장천지점장이 단수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8일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3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 여성후보인 한춘옥 예비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공관위는 한춘옥(순천농협 장천지

점장)·김정옥(경기대 관광학박사)·장형수(전 순천시 도시건설국장) 예비후보 등 3명에 대해 7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당은 한춘옥 예비후보가 순천 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단수 추천됨에 따라 오는 12일 2당선거지원단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고흥 2선거구 도의원(박선준), 보성다선거구 군의원(조영남) 보궐선거와 함께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